

1월의 기도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장 4절>



-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2.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3.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 가올지라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4.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 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해주옵소서.
6.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주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Lauren Jett Roop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쁨이라는 14살 소녀가 저에게 간증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간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따돌림을 당해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기쁨아"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두 번이나 듣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나는 외롭지 않다.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되고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 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씩씩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친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이 아이가 작년부터 교회학교 금요일야에 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참 기특합니다. 철야배를 한 주도 빠질 수 없는 이유가, "통성기도 시간에 마음에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야, 일주일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기 싫은 공부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꿈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보니 이 아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에 막다른 골목을 당하면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전 세계 부흥으로 더 나아간 한 세기
조용기목사, 지구 120 바퀴 비행하여 세계 복음화에 헌신...



출처: 도서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하나님을 만나다』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저)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 지도 출처: 도서 『선교의 길에서 기적의하나님을 만나다』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저)

조용기 목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복음의 증인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다. 1964년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1개국에서 성회를 인도했다. 거리를 환산하면 무려 지구를 120바퀴 돈 것과 같다. 성령에 이끌린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불 같이 뜨거웠고, 폭포수처럼 시원했다. 언제나 최대 인파가 모였고 수많은 결신자가 나왔으며 병자들이 신유를 경험했다.

조용기 목사의 해외 첫 일정은 1964년 한국하나님의성회 대표 자격으로 4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미국하나님의성회 교단 50주년 기념식'이었다. 그 후 조용기 목사는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불씨가 돼 순복음의 한인교회들이 하나둘씩 세워졌다.

또 1967년 4월 조용기 목사는 세계오순절총회 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홀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면서 유럽을 대상으로 한 복음의 행보가 이어졌다.

순복음의 여의도 시대가 열린 1973년 이후 세계는 한국의 순복음과 조용기 목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부흥성회가 많아졌고

조용기 목사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다. 미주 지역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방송이 시작됐다.

1980년대 조용기 목사는 일본 선교에 눈을 돌리고 복음화율이 1% 미만인 일본 복음화를 위한 '일천만 구령 운동'을 시작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에서 연이어 부흥성회를 인도하는가 하면 1980년 7월 6일부터는 일본 긴키TV에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예배 상황 및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일본 전역에 방송됐다. 아시아권 성회도 계속 진행됐는데 1982년 2월 17-19일 필리핀 마닐라 아라네타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마닐라 대부흥 성회'는 3만명 이상 성도들이 참석한 필리핀 기독교 사상 최대 규모의 성회였다.

조용기 목사는 계속해서 대규모 성회를 인도했는데 1979년 1월 중남미 코스타리카 성회, 1983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암스테르담 83국제순회전도자대회'가 대표적이다. 1980년 9월에는 이슬람 지역인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한 적도 있다.

조용기 목사의 인기는 대만에서도 대단했다. 1986년 8월 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제1회 아시아성도방한대성회가 개최되면서 대만 등 중화권 교회가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대만에 조용기 목사 제자 학교가 설립됐고 대만은 폭발적인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 조용기 목사가 대만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었다.

조용기 목사가 해외 성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은 성회는 1992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조용기 목사 초청 모스크바 대성회'와 1997년 9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브라질 대성회'다. 모스크바성회는 소련의 붕괴 이후 열린 개신교 최대 집회였다. 정부의 반대로 성회장소가 갑자기 폐쇄되기도 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야외 집회가 열리면서 1만 5000여 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성회였다.

브라질 성회는 무려 150만여 명이 참석한 성회로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정도였고 남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특히 비행장에서 열린 당시 성회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조용기 목사는 헬기를 이용해 강단으로 이동할 정도였다.

<<2면에 계속>>

되돌아보는 한 세기

조용기목사의 21C 세계 복음화 선교 행진



▲ 2005년 5월 미국 뉴욕 크리스천문화센터에서 열린 교회성장과 성숙을 위한 대성회



▲ 미국교회협의회에서 '더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을 수여받는 조용기 목사.



▲ 2007년 7월 치바에서 개최된 '2007 ALL JAPAN JESUS FESTIVAL'



▲ 2013년 7월 스웨덴 옘살라 생명의말씀교회(Livets Ord)에서 열린 '유럽 콘퍼런스 2013'

<<1면에 이어>> 조용기 목사는 1992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제6차 하나님의성회 대회에서 세계하나님의성회 총재로 선출됐고 세계오순절 성령운동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제3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199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성회에는 120만여 명이 운집했고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93 아프리카성령화 대성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1994년 2월 마리아 해변에서 개최된 '국제 CGI 인도대성회'에 연인원 200만명이 참석해 개신교 최대 집회로 기억되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중동지역에서도 성회를 개최해 화제였다. 1999년 3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성회'는 연인원 4만5000여 명이 운집해 중동에서 개최된 개신교 행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1996년 2월 전 세계 31개국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열린 '예수탄생 2천년 기념 대축제'는 이스라엘에서의 최초 개신교 집회였기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조용기 목사는 선교전문기구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의 창립과 함께 전 세계에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욱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2000년 6월 잠비아 칠루바 대통령의 초청으로 개최된 성회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오순절 성령운동을 일으킨 성회였다. 2004년 8월 몽골 울란바토르 중앙경기장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몽골 추수 2004 대성회'는 몽골 기독교 사상 최대인 원인 6만여 명이 참석했고 기독교인 수가 2만 5000명에 불과한 몽골 기독교계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는 대사건이었다. 2005년 5월 미국 뉴욕 크리스천문화센터에서 열린 교회성장과 성숙을 위한 대성회는 교계 뿐 아니라 뉴욕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고 조용기 목사의 날을 선포하는 한편 미국교회 협의회에서 '더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박차를 가했던 선교 행진 가운데 특히 2012년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같은 해 11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대성회 및 세미나(연인원 100만명 참석)를 인도하는 등 선교열정을 견고히 이어갔다.

2013년 7월에는 스웨덴에서 열린 '유럽 콘퍼런스 2013'에서 말씀을 전하고, 2014년 6월에는 처음으로 아르메니아(행사명: 성령 콘퍼런스)에서 성회를 인도했다. 이어 2015년 2월 인도 발리콤파에서 대성회, 2016년 6월 인도 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성회, 8월 마카오 성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태국에서는 2017년 2월(태국 축복과 기적의 대성회),

2019년 11월(치앙마이 태국 복음주의 연방 50주년 대성회) 각각 복음을 전했다.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에 앞장서온 조용기 목사는 일본선교의 첫 발걸음을 땀던 1967년 이후 198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일본을 찾아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일본에서 치러진 조용기 목사의 공식적인 성회만 100여 차례 이상 집계된다. 특히 2007년 7월 치바에서 개최된 '2007 ALL JAPAN JESUS FESTIVAL'은 조용기 목사의 일본선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로 DCEM을 중심으로 일본의 주요 교단과 교회가 하나로 응집하여 7천 여명이 운집한 집회다. 현지 기독교계에서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의 가능성을 발견한 성회로 일본 선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역사로 기록됐다.

조용기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에 근거한 '오중복음 삼중축복', 실천 가능한 '4차원의 영성'을 제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꽂 채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특집] 평양 조용기목사심장병원



▲ 평양 봉수교회에서 말씀전하시는 조용기 목사



▲ 평양에 건설되고 있는 평양심장전문병원. 201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 평양심장병원 착공식에 참석하여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회의 환담하는 모습



▶ 평양심장병원 조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21.11.20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북한 평양에 평양심장전문병원(조용기심장병원)을 건설 중이다. 평양심장전문병원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병원 건립을 제안했고 이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받아들여면서 본격화됐다. 2007년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위원회'가 발족했고,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합의를 거쳐 그해 연말 공사가 시작됐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7층에 총면적 2만㎡, 전체 280병상 규모로 설계됐

다. 당시 완공까지 2년 6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공사가 중단됐었다. 평양심장전문병원은 총 공사비 200억원이 투입돼 7층, 260개 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이를 주도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심장병 무료 수술사역을 수십년간 진행해 왔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심장병 치료 사역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보낸 10월 28일자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평양심장병원을 통해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중증 질환

치료 사업 등 '여의도순복음재단(YGMF)'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장비부터 건축 자재까지 1,254개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유엔의 제재 면제 서한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병원이 완공되면 남측 의료진과 전문 인력뿐 아니라 목회자까지 상주하며 의료혜택과 함께 치유목회 사역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1월호부터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와 발자취를 담고자 합니다.>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2021년 한 해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DCEM은 계속해서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선교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복된 성탄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S. SUGIMATSU